

한국인 학생의 프랑스어 운율 학습 결과 고찰*

이 정 원

Abstract

Lee Jungwon. 2012. 2. 28. **An experimental study in French prosodic structure produced by Korean students.** *Bilingual Research* 48, 393-418. Learning the prosody of a language means to study the diverse phenomena, such as melody, intensity, duration, etc., that is foreign but inseparable to the double articulation of speech. In order to study the prosodic system of a language, we should examine its accentual, rhythmic or melodic system which can be represented by inton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result of French prosodic utterance produced by Korean students in order to compare the crucial points of the French intonational production between French native speakers and Korean students. It 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learning the prosody of a language with not only with a listening method but also with a visual method, as the Praat which is a sound analysis software. With the results, we expect to offer the students a motivation in learning French prosody more efficientl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French prosody, intonation, stressed syllable, rhythmic group, Praat 2.0.

* 이 논문은 2008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년 학술지원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정확한 말소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소리란 해당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말소리란 단지 개별 음의 정확한 발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말소리를 크게 분류하면 개별소리인 분절음 연구 분야와 발화체의 특정 단위에 걸쳐 나타나는 운율 연구 분야가 있는데 개별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발화 메커니즘을 터득하면 어느 정도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율분야는 운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특징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우므로 외국어의 운율을 학습함에 애로가 뒤따른다. 외국어 학습 시 개별 분절음의 정확한 구현도 중요하지만, 운율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운율에 상대방의 전달의도가 담겨 있으며 운율의 특징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경우, 원어민에게 잘 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프랑스어의 말소리 학습 내용 중 운율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프랑스어의 운율 교육 실제¹⁾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Praat 2.02²⁾ 분석 창의 내용을 참고로 운율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습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발화내용을 원어민 화자들의 것과 비교 분석한 다음, 분석내용을 정리하여 제안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³⁾. 학생들은 원어민 화자

1) 멀티미디어를 통한 시 운율교육의 시각화 연구(김수현, 2009; 정지혜, 2010)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성분석기기의 분석 창을 통한 운율의 시각화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2) 소프트웨어는 Praat 홈페이지, <http://fonetiks.info/praa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필자는 Praat의 분석 창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 발화한 운율 분석 창과 자신이 발화한 운율 분석 창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익히고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운율 형태(억양곡선 및 음절의 길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랑스어 운율의 특성

한 언어의 운율 체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해당 언어의 리듬을 나타내는 강세패턴⁴⁾과 억양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멜로디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프랑스어의 운율단위는 음절, 음운단어, 리듬군⁵⁾ 그리고 억양⁶⁾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억양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위인 리듬군과 강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운율단위를 나타내는 것 중 억양(intonation)과 강세법(accentuation)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현상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강세법은 음절 한 개만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억양은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말소리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어는 영어와 같은 변별적인 낱말 강세가 없으며, 여러 개의 낱말을 포함하는 리듬군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그리고 여러 개의 리듬군이 모여 더 큰 단위인 억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말소리 교육 시에 가장 중요한 운율단위인 강세 음절, 리듬군 및 억양의 개념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이들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시켜야 하겠다.

기초적인 억양학습을 시도하여 효과를 얻은 바가 있다(이정원, 2003a).

- 4) 프랑스어의 강세는 하나의 리듬군 안에서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에 놓이며 다른 음절보다 길게 표현되고 둔들림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어에는 영어와 같은 낱말 stress가 없다.
- 5) 리듬군, 낱말군, 강세구, 운율군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리듬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6) 본 논문에서 억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멜로디 곡선을 뜻한다.

2.1 프랑스어의 운율 단위

프랑스어에서는 문법 강세⁷⁾를 받는 음절이 무강세 음절보다 약 1.5배 - 2배가량 길게 표현되며, 하나의 리듬군 안에서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나타나고 상승이나 하강의 음조를 띤다. 이에 따라 억양곡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프랑스어의 강세 음절은 문법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경계획정 및 표현적 기능을 하고 있다. 문장 “Vous venez demain à mon bureau de bonne heure. [vuvənədəmɛ̃amɔ̃byʁodəbɔ̃nœʁ]”은 천천히 발화할 경우 3개의 리듬군으로 나뉘어 [vuvənədəmɛ̃ | amɔ̃byʁo | dəbɔ̃nœ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발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vuvənədəmɛ̃ | amɔ̃byʁodəbɔ̃nœʁ]와 같이 2개의 리듬군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다. 리듬군의 경계에 놓이는 강세 음절 [mɛ̃]과 [ʁo] 다음에 약간의 휴지가 오며, 이 강세 음절은 상승조로 발화된다. 그리고 발화체 끝의 강세 음절 [nœʁ]을 상승조로 표현하면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의미가 변화된다.

프랑스어에서 리듬군을 가르기 위해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음절이다. 즉, 표기법에서 음절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연음된 결과를 토대로 음절 가르기가 이루어지므로 프랑스어의 연음 현상⁸⁾은 발음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Il est dans la salle à manger. [ilɛdālasalamãʒe] (그는 식당에 있다.)”라는 문장은 각 어휘의 음성표기를 살펴보면, /il/ /e/ /dã/ /la/ /sal/ /a/ /mãʒe/로 각각 발음되지만, 음절 가르기에 의해 [i-le-dã-la-sa-la-mã-ʒe]로 분석된다. 연음한 결과, 어휘를 따로따로 발음했을 경우와는 달

7) 강세는 어휘 강세, 문법 강세, 일반 강세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

8)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에는 앙첸느망(enchaînement)과 리에종(liaison)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리 음절 가르기가 적용되어 [il]과 [e]가 [i]와 [le]로, [sal]과 [a]가 [sa]와 [la]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리듬군 가르기란 해당 언어의 발화체계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 하여 호흡 및 청취에 무리가 없도록 하며, 문장을 운율단위로 나누어 의미전달에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마지막 강세 음절의 높낮이 변조에 따라 지각되는 여러 개의 리듬군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리듬군의 높낮이가 문장 전체의 억양을 구성하며 청자가 청취 후 의미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호흡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의미전달을 위해서도 리듬군 가르기가 적용된다. “Marie lit un livre sur la table. [maviliœlivɛsyvlatabl]”라는 문장은 리듬군을 어느 위치에서 가르는가에 따라 중의적으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ma-**ri**↗ | **li**↗ | œ-livɛ-syv-la-**tabl**↘] “마리는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는다.”와 [ma**ri**↗ | li-œ-**livɛ**↗ | syv-la-**tabl**↘] “마리가 책상 위에 앉아 책을 읽는다.”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의 억양패턴은 상승조, 하강조, 상승-하강조 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상승조는 의문 또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며, 하강조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출판된 교재에는 멜로디 곡선을 그려 상승조와 하강조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억양곡선을 평서문, 의문문 또는 감탄문 등과 같이 문장의 변별적 기능으로만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억양은 이러한 변별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2.2 억양의 기능

억양은 문장 전체에 걸쳐 표현되는 운율현상으로 프랑스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운율단위이다. Lhote(Lhote, E., 1995)는 억양을 변별기능을 포

함하여 경계획정 기능, 통사적 기능, 표현적 기능, 대화 지속 의도적 기능 등, 다섯 가지 기능⁹⁾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억양의 변별적 기능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으로 타 언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기능이다. 즉, 같은 발화 연속체에 문미 억양곡선의 변화만을 통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경계획정 기능은 의미전달에서 모호성을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 belle ferme le voile. [la-bɛl-fɛm-lə-vwal]”이라는 발화 연속체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 그러나 억양이 개입되면 “La belle ferme / le voile. (의미: La belle maison le cache. 아름다운 농장이 그것을 가린다.)”와 “La belle / ferme le voile. (의미: La belle femme ferme le voile. 아름다운 여인이 베일을 가린다.)”와 같이 의미를 나눌 수가 있다.

셋째, 통사적 기능이란 억양의 변화만으로 연속된 두 문장의 등위관계 또는 종속관계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억양의 변화만으로 그 안에 함축된 이유와 결과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문장으로 구성된 “Il a plu beaucoup. La voie est glissante. (비가 왔다. 길이 미끄럽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므로 단언을 표현하지만, “La voie est glissante parce qu'il a beaucoup plu.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럽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 따라서 첫 문장이 평서문 형태이지만 발화시에 상승조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표현적 기능은 발화된 억양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여러 가지 양태를 나타내는데 화자의 감정 상태, 태도, 의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주관적으로 특정 낱말이나 음운단어에 강조 강세를 추가하여 발화하게 된다.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놀람, 슬픔, 기쁨, 열의, 의심, 확신, 빈정거림, 반문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억양에 담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단언을 나타내는 “C'est formidable ! [sɛ fɔʁ-mi-dabl\]

9) la fonction distinctive, la fonction démarcative, la fonction syntaxique, la fonction expressive, la fonction communicative.

(멋지다.)”가 열의를 나타내는 강조를 동반하여 “C'est formidable ! [se ˈfɔʁ-mi-dabl̥] (대단히 멋지다.)”로, 또는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C'est formidable ! [se fɔʁ~mi~dabl̥] (멋지다고?! : “글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의 의미를 포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섯째, 대화 지속 의도적 기능은 억양변화만으로 대화 지속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화자와 대화자 그리고 상황조건 등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려우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기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자 간에 어떤 표현을 생각하더라도 억양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서로 알아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억양의 기능은 일반적인 문장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다. 학습서 대부분에서는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으로 분류¹⁰⁾하여 문장별 억양패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구어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서 ‘상황문¹¹⁾’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항상 상승조의 억양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해야 하는 억양은 앞에서 묘사한 바와는 달리 더욱 복잡하고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평서문의 억양패턴인 상승-하강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문장이 최소한 두 개의 리듬군으로 나뉘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리듬군은 상승조로 표현되고 두 번째 리듬군은 하강조로 표현된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문장의 첫 번째 리듬군을 하강조로 표현하고 두 번째 리듬군을 상승조로 실행하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특정 음절에 강조 강세를 넣어 놀람을 표현할 수도 있다.

10) la phrase déclarative, la phrase interrogative, la phrase exclamative, la phrase impérative.

11) 상황문(la phrase implicative)은 기능분류의 대화 지속 의도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어에서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끝말을 잇지 않아 말없음표로 마무리된다. 화자의 의도를 대화자가 알아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문의 실험이 매우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억양의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변형된 관점의 억양학습과 상황문에 대한 지도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 하나를 농침으로써 대화자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인 학생의 프랑스어 운율 실현 양상

강의실에서 말소리 교육에 사용되는 방법은 교재와 연계된 음성 CD나 DVD 파일이 대부분이다. 발음지도의 예로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따라 하게 하거나 교수가 내용을 반복한 후 학생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 학생들에게 싫증 난 것이며 청각 위주로 듣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차이가 나는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지각적인 측면에서 음성기호를 사용하여 발음의 이론적 교육을 하고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예문에 표시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좀 더 향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낮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억양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음성분석기기를 강의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험음성학적 연구에 이용되는 음성분석기기를 통해 예문들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억양곡선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각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하게 한 후, 원어민의 억양곡선을 모방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1 실험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의 실험목적은 프랑스어 운율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주시킨 다음, 녹음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첫째, 원어민과 학생들의 발화가 프랑스어의 운율 이론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학생들의 발화가 원어민 화자의 발화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는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 정리하여 앞으로 학생들의 운율지도에 도움이 될 팁을 찾아보고자 한다.

원어민 화자의 녹음은 현재 프랑스어 교수로 재직 중인 남성 두 명(이하 L1-1, L1-2)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비교 대상 학생들은 현재 P 대학교 불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명(이하 L2-1, L2-2)과 여학생 2명(L2-3, L2-4)¹²⁾의 발화를 녹음하여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능력 시험인 DELF A2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실험방법은 음성분석기기, Praat 2.0을 사용하였으며, 녹음 시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러운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녹음 전, 관찰항목에 명시된 녹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입시켜 발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원어민 화자와 학생들은 여러 차례 발화 연습을 통해 관찰항목의 녹음 상황을 이해했으며 비교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녹음된 내용을 Praat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된 관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raat 분석 창상의 음절 길이를 측정하여 강세 음절이 무강세 음절보다 길이가 긴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전체적인 Pitch의 높낮이 변화 곡선이 어느 정도 이론과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셋째, 원어민과 학생들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12) 비교 대상 원어민에 여성 화자는 없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피치의 상세한 높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피치곡선과 강세 음절의 길이만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여학생 실험자를 추가하였다.

<표 1> 녹음용 자료

관찰항목	표현
1 강세 음절	(1) Bonjour. (2) Bonjour madame. (3) Bonjour madame Lee.
2 리듬군 가르기	(4) La belle ferme le voile. (5) La belle ferme le voile.
3 억양의 변별적 기능	(6) 평서문: Vous venez à mon bureau demain. (7) 의문문: Vous venez à mon bureau demain ? (8) 명령문: (Vous) Venez à mon bureau demain !
4 통사적 기능	(9) Il a plu beaucoup. La voie est glissante.
5 감정 표현적 기능	(10) 평서문: C'est formidable ! (11) 열의: C'est formidable ! (12) 빈정거림: C'est formidable !

3.1.1 강세 음절과 무강세 음절의 차이 측정 결과

녹음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론적 배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강세 음절이 무강세 음절보다 약 1.5배 - 2배까지 길게 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항목 1의 내용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2>, <표 3>, <표 4>와 같다¹³⁾.

<표 2> “Bonjour.”의 음절 길이 측정 결과

(1) Bonjour.				
단위: ms				
	bɔ̃	ʒuʁ	bɔ̃ : ʒuʁ(%) ¹⁴⁾	bɔ̃ʒuʁ
L1-1	277	397	1 : 1.43	675
L1-2	307	726	1 : 2.36	1033
L2-1	285	587	1 : 2.05	872
L2-2	256	569	1 : 2.22	825
L2-3	331	526	1 : 1.58	857
L2-4	266	384	1 : 1.44	651

13) 강세 음절을 진한 글씨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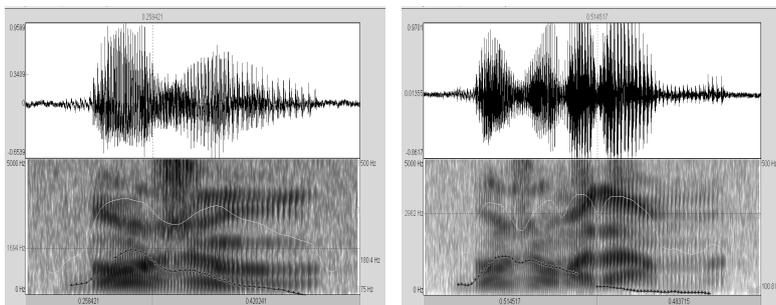
<표 2>의 강세 음절인 [ʒuʁ]의 길이 측정에 있어 L1-2의 길이가 다른 화자들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것은 L1-2의 전체발화 속도가 다른 화자들의 발화속도보다 느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L1-1이나 L2-4처럼 빠른 속도로 발화했거나 L1-2처럼 천천히 발화했더라도 모든 화자가 무강세 음절인 [bɔ̃]보다 강세 음절인 [ʒuʁ]를 약 1.5 - 2배 가까이 길게 발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1>¹⁵⁾에서 시각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 중앙선 이후가 강세 음절이며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도 [bɔ̃] 음절보다 [ʒuʁ]음절의 길이가 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Bonjour” 뒤에 “madame”을 덧붙여 발화한 것을 측정한 것이다. “Bonjour.”만 발화를 했을 때 강세를 받던 [ʒuʁ]가 무강세 음절로 변화하며 어말 음절인 [dam]에 문법 강세가 실현되므로 [dam] 이외의 음절들이 짧게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에서 살펴볼 것은 화자마다 무강세 음절들보다 강세 음절을 길게 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Bonjour madame.”의 음절 길이 측정 결과

(2) Bonjour madame.					
단위: ms					
	bɔ̃	ʒuʁ	ma	dam	전체길이
L1-1	261	137	106	491	995
L1-2	337	154	134	523	1148
L2-1	268	171	154	596	1189
L2-2	242	316	161	574	1293
L2-3	389	217	211	691	1508
L2-4	295	234	155	377	1061

- 14) 음절의 상대적 길이(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함.) <표 3> 이후부터는 음절의 숫자가 여러 개이므로 상대적 길이를 %로 나타내지 않음.
- 15) 그림의 상단은 음성파형을 나타내며, 하단에 스펙트럼, 에너지 및 피치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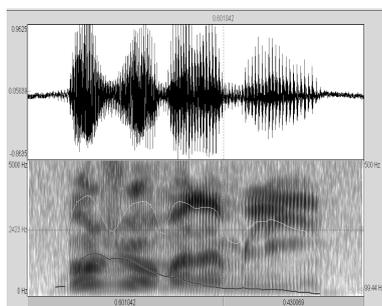
<그림 1> (1) L1-1 “Bonjour.” <그림 2> (2) L1-1 “Bonjour madame.”

<그림 2>에서 [ʒuʁ]의 길이가 <그림 1>에서 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에서는 [ʒuʁ]가 무강세 음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세 음절인 [dam]의 길이는 다른 음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Bonjour madame Lee.”의 음절 길이 측정 결과

(3) Bonjour madame Lee.						
단위: ms						
	bʒ	ʒuʁ	ma	dam	li	전체길이
L1-1	231	166	107	164	366	1034
L1-2	281	142	149	224	535	1331
L2-1	282	213	143	223	502	1363
L2-2	237	332	143	198	437	1347
L2-3	235	251	164	236	485	1371
L2-4	207	221	151	174	265	1018

<표 4>의 수치는 <표 3>에서 강세를 받던 [dam]이 무강세 음절이 되어 길이가 축소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L1-1의 발화 <그림 3>을 통해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3) L1-1 “Bonjour madame Lee.”의 분석 창

<그림 3>에서는 <그림 2>에서의 강세 음절이었던 [dam]이 무강세 음절이 되어 길이가 짧아졌으며 강세 음절인 [i]의 길이가 다른 무강세 음절들에 비해 길게 발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어의 강세 이동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시킨 후, 발음지도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발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1.2 리듬군 가르기와 강세 음절 길이 측정

“La belle ferme le voile.”이라는 같은 문장¹⁶⁾을 토대로 휴지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휴지 앞의 강세 음절의 길이를 재어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측정된 음절 길이의 수치들을 다음 <표 5>와 <표 6>에 정리했다. 이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화자 L1-1의 발화 분석 그림을 통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16) 이 문장은 매우 잘 알려진 문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화를 시켰을 때 과연 그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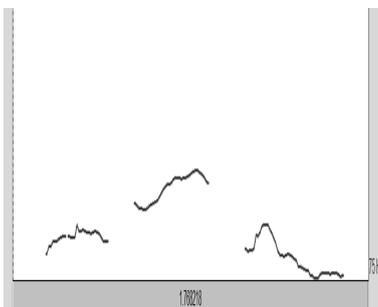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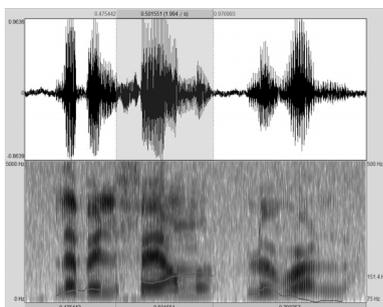
<표 5> “La belle ferme le voile.”의 강세 음절 길이 측정 결과

(4) La belle ferme / le voile.							
단위: ms							
	la	bɛl	fɛʁm	휴지	lə	vwal	전체 길이
L1-1	104	217	496	174	146	357	1494
L1-2	223	262	483	89	101	631	1789
L2-1	192	268	549	236	204	412	1861
L2-2	161	246	574	766	197	457	2401
L2-3	189	195	462	236	182	417	1681
L2-4	147	206	613	115	191	431	1703

<표 5>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들에 따라 휴지의 길이가 길게 또는 짧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휴지 앞의 강세 음절인 [fɛʁm]의 상대적인 길이이다. 이 문장에서 [fɛʁm] 다음에 휴지가 나타나는 것은 화자들의 인식 속에 [fɛʁm]이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의 [fɛʁm]은 강세 음절에 해당하며 <그림 4> “(4) L1-1 La belle ferme / le voile.”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음절들보다 길게 실현되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L1-2를 제외하고는 문미 강세 음절인 [vwal]보다도 [fɛʁm]의 길이가 약간 더 길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전체 문장의 피치를 살펴보면 [fɛʁm] 부분에서 상승조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그림 4>와 <그림 5>17)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

17) <그림 5>는 <그림 4>의 억양(Pitch) 곡선만 확대한 것이다.

18) 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각각의 음절 길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음절 안에 속해있는 음성의 개수에 따라 그 길이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사인 [la]나 [lə]보다는 [fɛʁm]의 길이가 당연히 길게 실현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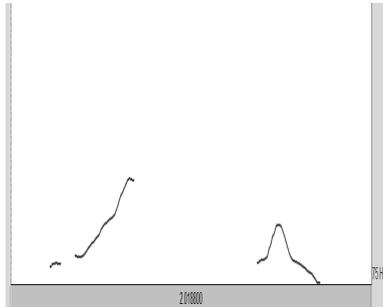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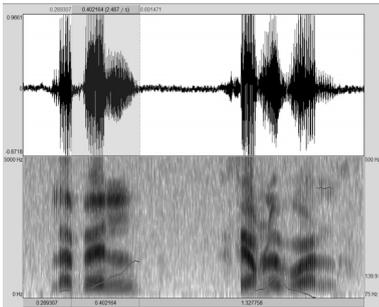


<그림 4> (4) L1-1 발화 분석 창 <그림 5> (4) L1-1 억양곡선
 “La belle ferme / le voile.”의 분석 결과 창

<표 6> “La belle ferme le voile.”의 강세 음절 측정 결과

(5) La belle / ferme le voile.							
단위: ms							
	la	bel	휴지	fɛʁm	lə	vwal	전체길이
L1-1	117	403	484	198	145	468	1815
L1-2	214	456	265	371	172	408	1886
L2-1	156	417	089	497	189	491	1839
L2-2	197	497	734	397	129	462	2416
L2-3	163	415	275	303	109	398	1663
L2-4	215	475	227	262	124	498	1801

<표 6>에서는 [bel] 다음에 휴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bel]이 강세 음절이므로 길게 발화가 되었으며 반면에 [fɛʁm]은 <표 5>에서보다는 짧게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 L2-1의 경우 [fɛʁm]의 길이가 497ms로 다른 화자들에 비해 길게 발화했는데, 이는 분석 결과 학생이 [bel] 다음에 휴지를 짧게 갖고 [fɛʁm]의 초성마찰음인 [f]를 길게 발화했기 때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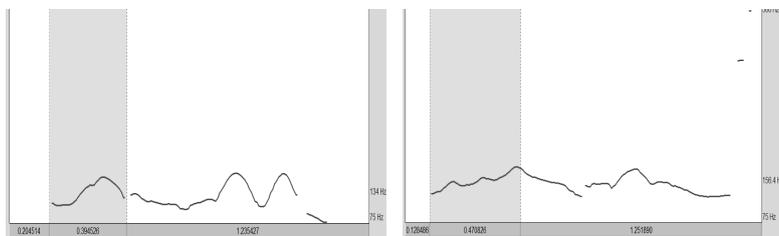


<그림 6> (5) L1-1 발화 분석 창 <그림 7> (5) L1-1 억양곡선
 “La belle / ferme le voile.”의 분석 내용

<그림 4>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강세 음절의 길이뿐만 아니라 리듬군의 통사적 경계에서 억양곡선이 상승조로 나타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강세 음절과 억양곡선의 상관 관계를 학습지도에 도입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율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1.3 억양의 변별적 기능

학생들이 같은 문장에 대해 문미 억양의 차이만으로 문장의 변별적 의미를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발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발화가 모두 대체로 원어민 화자들의 억양곡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미 억양의 차이를 잘 습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6) L1-1 분석 창

<그림 9> (6) L2-1 분석 창

“Vous venez à mon bureau de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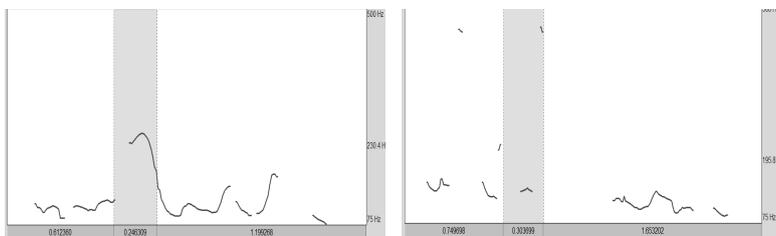
원어민 L1-1의 발화인 <그림 8>¹⁹⁾과 학생 L2-1의 발화인 <그림 9>를 비교한 결과, 원어민은 전체 문장을 [vuvəne], [amõbyko], [dәмẽ]과 같이 세 개의 리듬군으로 표현하면서 “demain”(내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발화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vuvəneamõbyko]를 하나의 리듬군으로 발화하여 전달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발화 시 리듬군의 경계를 정확하게 강조하여 발화하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3.1.4 억양의 통사적 기능 확인

두 개의 문장이 의미상 이유와 결과로 연결된 경우에 앞의 문장이 마침표로 끝났더라도 상승-하강조인 평서문으로 발화하지 않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상승조의 억양으로 발화된다. 이것은 억양의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화자들이 문장을 이유와 결과로 제대로 재현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원어민 화자 L1-1과 L1-2의 발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10>과 <그림 11>과 같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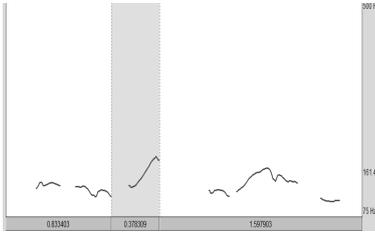
19) 피치가 끊기는 부분은 성대의 울림이 없는 부분, 즉 무성자음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치 끝자락을 이으면 억양곡선이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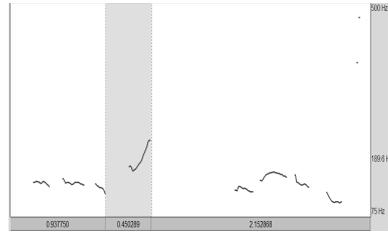
<그림 10> (9) L1-1 분석 창 <그림 11> (9) L1-2 분석 창
 “Il a plu beaucoup. La voie est glissante.”의 억양 곡선

이 경우, 원어민 L1-1의 발화인 <그림 10>과 원어민 L1-2의 발화인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어민 화자들에게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L1-1의 경우에는 [ku] 음절을 상승조로 표현하여 두 문장을 이유와 결과문으로 확실하게 발화했으나, L1-2의 경우에는 [ku] 부분을 하강조로 표현하고 두 개의 문장 사이에 휴지를 길게 두어 각 문장을 모두 평서문으로 평범하게 발화했다. 이는 녹음 전에 이유와 결과라는 상황을 설명했으나 L1-2는 텍스트 상의 마침표를 의식하여 두 개의 평서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학생들은 “beaucoup”의 마지막 음절을 상승조로 표현한 바, 약하게나마 이유와 결과로 발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명의 학생도 원어민 L1-2와 같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긴 휴지²⁰⁾를 두어 발화했으며 L2-4 학생만이 L1-1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으로 확실하게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발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2>~<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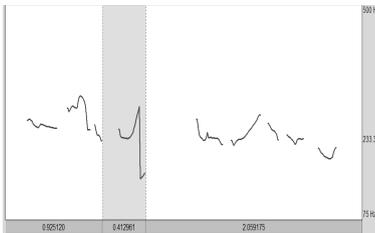
20) 녹음 전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상황임을 지시하였으나 학생들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긴 휴지를 두게 된 이유는 역시 텍스트의 마침표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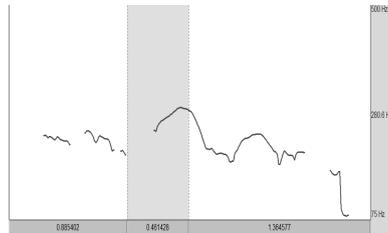
<그림 12> (9) L2-1 분석 창



<그림 13> (9) L2-2 분석 창



<그림 14> (9) L2-3 분석 창



<그림 15> (9) L2-4 분석 창

3.1.5 강조 강세: 음절길이와 억양곡선 분석

일반적으로 평범한 감탄문에도 다양한 강조 강세가 개입되어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원어민 L1-1이 발화한 평범한 감탄문과 강조 강세를 넣어 발화한 감탄문의 <그림 16>과 <그림 17>을 비교한 결과, 원어민에게서는 억양곡선에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생들은 강조된 감탄문을 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화자들의 감탄문 발화의 음절 길이를 측정된 내용은 <표 7>,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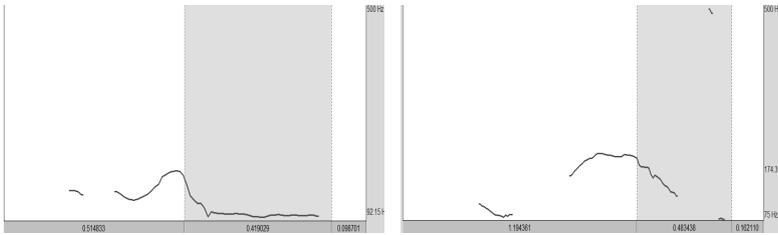
<표 8> 강조문 “C'est formidable !”의 음절 길이 측정 결과

(i) 강조문: C'est formidable !					
단위: ms					
	se	fɔʁ	mi	dabl	전체길이
L1-1	169	298	134	207	808
L1-2	349	762	136	398	1645
L2-1	238	392	188	573	1391
L2-2	246	619	161	613	1639
L2-3	268	435	199	633	1535
L2-4	239	401	123	555	1318

<표 8>의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인 화자들은 강조 강세를 받는 [fɔʁ]가 문미 강세를 받는 [dabl]보다 길게 실현되는 반면에 L2-2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생들이 강조하는 부분인 [fɔʁ]를 문미 강세 음절인 [dabl]의 길이보다 짧게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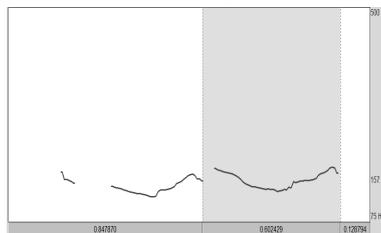
강조 강세는 감정을 표현하는 화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조 강세가 문미 강세보다 길게 표현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인위적으로라도 학습을 유도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표현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빈정거림을 표현하는 부분에는 역시 화자마다 다양한 억양곡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감정표현 문미 억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원어인 L1-1과 L1-2의 발화분석 그림을 통해 프랑스인들도 서로 다른 문미 억양으로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12) L1-1 분석 창 <그림 19> (12) L1-2 분석 창
 빈정거림 “C'est formidable !” 빈정거림 “C'est formidable !”

<그림 18>에서 L1-1은 [dabl]를 삼입구²¹⁾ 형태로 발화하고 있으며, <그림 19>에서 L1-2는 강조 강세를 덧붙여 [fɔʁmidabl] 전체를 강조하는 형태로 발화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감정표현 실현을 더욱 힘들어했는데, 빈정거림을 표현하기보다는 의문문 형태로 문미 억양을 발화했다. 아래 학생 L2-1의 발화인 <그림 20>을 보면 문미 억양을 상승조로 발화하여 의문문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0> (12) L2-1 분석 창
 빈정거림 “C'est formidable !”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표현의 억양

21) 프랑스어의 삼입구는 억양곡선의 바닥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Il viendra, je pense, demain.”(그가 내일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에서 “je pense”는 삼입구로 억양곡선 상에서 바닥에 그려진다. 따라서 억양은 상승(il viendra : /) - 삼입구(je pense : _) - 하강(demain : \)의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은 역시 개별적인 특성이므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각 상황에 충분히 적응한 후이나 적절한 억양 표현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3.2 실험 결과

말소리란 한 개인에 속해 있는 고유한 표현이다. 특히 억양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원어민 프랑스인 화자 2명과 학생 4명을 대상으로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실행된 녹음이었으므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론에 들어맞고는 있었으나 학생들은 언어의 숙달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명의 학생 모두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며 DELF A2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언어숙달에는 약간의 차이²²⁾가 있었다.

일반적인 말소리 교육은 이론에 따라 지도할 수 있겠으나 실제 상황에서 표현되는 감정의 다양성은 일반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강세와 다양한 억양이 나타나는 실제상황의 발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실험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프랑스인 화자 중 한 명이 Lille 출신이었는데 말을 느리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프랑스어의 운율 이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운율을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표준어 발음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이유는 교수직을 수행하는 국내의 프랑스인 화자들이 모두 표준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22) 본 논문의 실험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였다.

4. 결론

국내에서 외국어를 학습하여 이중 언어 화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의지와 동기에 덧붙여 교수의 정확한 도움과 올바른 학습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이중 언어 습득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성분석기기를 학습도구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실제 발화한 내용과 학생들의 발화내용을 Praat 음성분석기기를 통해 분석²³⁾한 후, 프랑스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성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그 결과가 이론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각 상황에 적합한 운율을 실현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강세 음절의 정확한 표현과 억양곡선의 실현 등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논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말소리는 개인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지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이 듣기만으로 운율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더 효과적으로 원어민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이정원, 2003a: 67~70).

시각적 동기부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교수가 없어도 혼자 실습할 수 있는 음성분석프로그램이 실용적일 것이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음성분석기기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발음지도에 임할 때의 문제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개별 학생들의 발화 녹음부터 음성 분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각적 방법을 동원한 발음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각자가 집에서 연습할 시간을 준 후, 다시 강의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써 시간적인 단점을 극복할

23)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자료의 분석 그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julee@bufs.ac.kr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수 있겠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원어민 화자의 모델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말소리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음성분석기기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더 효과적인 발음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화자들의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지 못했으나 차후 음성분석을 할 때 이런 점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필자가 주장하는 시각화를 통한 운율 교육을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습자들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교육의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표준 프랑스어의 모델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수현(2009).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모형 방안: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 지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2002). A Comparative Study on Intonation between Korean, French and English, <음성과학> 제9권 1호, 한국음성과학회. 89쪽~110쪽.
- _____(2003a). 억양의 시각화를 통한 프랑스어 억양학습, <음성과학> 제10권 4호, 한국음성과학회. 63쪽~71쪽.
- _____(2003b).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프랑스어 억양학습, 한국불어불문학회 2003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6쪽~134쪽.
- _____(2004). 프랑스어 문미 억양 차이에 따른 의미전달, 제15회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70쪽~80쪽.
- _____(2010). 인터넷 학습사이트 활용을 통한 프랑스어 발음학습, 2010 한국음성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9쪽~131쪽.
- 장한업(2000). 既知語를 활용한 효과적인 프랑스어 발음 지도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제10집, 프랑스어문교육학회. 67쪽~82쪽.
- _____(2007). 음률군(groupe rythmique)과 읽기 교수/학습,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7 학술대회 논문집, 46쪽~47쪽.
- 정지혜(2010). 교과 내용의 시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하영동, 민진영(2006).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22집, 프랑스어문교육학회. 65쪽~96쪽.

Callamand, M.(1981). *Méthodologie de l'enseignement de la prononciation*. Paris: Clé International.

Carton, F., M. Rossi, et al.(1983). *Les accents des français*. Paris: Hachette F.L.E.

Léon, P. R.(1992). *Phonétisme et prononciations du français*, Paris: Nathan.

Lhote, E.(1995). *Enseigner l'oral en interaction: percevoir, écouter, comprendre*, Paris: Hachette F.L.E., Collection Autoformation.

Martin, P.(1999). Intonation: a Case for Experimental Phonology, *Actes du Colloque de Royaumont*, ICP, Grenoble, 1999.

Wioland, F.(1991). *Prononcer les mots du français: des sons et des rythmes*. Paris: Hachette.

이정원 (Lee Jungwon)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불어과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번지

전화번호: 051-640-3062 / 010-8960-1799

전자우편: julee@bufs.ac.kr

투고일자: 2011. 12. 20

심사(수정)일자: 2012. 2. 13

게재결정: 2012. 2. 14